

13조 몰린 삼성전자 레버리지 ETF… 증시 변동성 키운다

주가 하락에 ETF 수익률 ‘반토막’
닉스 ADR, 본주와 최대 51% 괴리
국내는 자금 풀림에 변동성 우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13조원 넘는 자금을 끌어모았지만 수익률은 반토막 수준으로 추락했다. 미국에서는 주식예탁증서(ADR)가공 모가를 웃돌고 관련 레버리지 상품도 잇따라 출시되는 반면, 국내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대규모 자금을 빨아들이며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제도 보완에 나섰지만 시장에서는 구조적인 한계 탓에 변동성 우려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0일 한국거래소와 코스콤 ETF CHECK에 따르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이 출시된 지난 5월 2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관련 ETF 16종에 순유입된 금액은 13조4133억원으로 집계됐다. 종목별로는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5종에 8조5456억원, 삼성전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5종에 4조7211억원이 몰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인버스 2종에도 1466억원이 들어



ChatGPT로 생성한 ‘코스피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이미지.

왔다.

특히 최근 한 달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KODEX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로 2조8447억원을 순매수했으며, 다음으로는 ‘TIGER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1조4143억원)’, ‘KODEX 삼성전자 단일종목 레버리지’(1조2358억원) 등이 차지했다.

하지만 이달 들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각각 33.43%, 26.95%씩 하락한 만큼 관련 레버리지 상품의 수익률도 곤두박질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KODEX SK하이닉스 단일종목레버리지’는 최근 한 달 동안에만

50.03% 폭락했으며, ‘KODEX 삼성전자 단일종목레버리지’도 50.11% 추락했다.

같은 SK하이닉스를 둘러싼 한국과 미국 시장의 온도차도 분명하다. 현대차증권에 따르면 지난 10일 나스닥 시장에 공모가 대비 12.76% 상승한 168.01달러로 상장된 SK하이닉스 ADR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본주와의 격차를 한때 51%까지 벌렸다. 미국은 수백 개 종목에 레버리지 ETF가 분산돼 있는 반면 국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자금이 집중되면서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현대차증권은 과거 TSMC의 AD

R 사례를 분석해 볼 때, ADR 프리미엄 확대가 본주 매도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 증권사 김재승 연구원은 “SK하이닉스 ADR 상장은 외국인의 구조적 이탈 요인이기보다 한미 증시 간의 새로운 가격 발견 경로가 만들어지는 기회”라며 “단기 수급 변동은 있을 수 있으나 적정 프리미엄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본주 매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규모 자금이 집중되며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상장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 16일 정부도 해당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최소 매수 단위를 20좌로 늘리는 등 제도 보완에 나선 바 있다. 상장폐지에 대해서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미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고 상품 규모도 10조원 이상 형성돼있다”며 “상장폐지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하지만 리밸런싱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는 이상 변동성 완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증권가에서는 거래대금의 최대 10% 이상이 리밸런싱 물량

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현중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5월 27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리밸런싱 수요가 일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적으로 4% 내외”라면서도 “종목의 수익률 변동폭이 커질수록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상회하기도 한다”고 짚었다.

이처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한국 증시의 영향력도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변동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코스피와 나스닥 100 지수의 60일 상관계수는 0.46으로, 5년 평균(0.16)의 약 3배 수준까지 높아졌다.

뉴욕 투자회사 티그리스파이낸셜파트너스의 아이번 파인세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코스피가 미국 AI와 반도체주의 위협을 가하는 장 시작 전 신호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한국은 이제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SOX)가 속한 동일한 변동성 생태계의 일부가 됐다”고 평가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증권사 2분기 호실적에도 주가는 ‘주춤’

5개 증권사 영업익 컨센서스 4.8조
KRX 증권지수 5월 고점 比 34% ↓

사상 최고 실적을 써가고 있는 증권주의 ‘욕석가리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20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한국금융투자·삼성증권·NH투자증권·키움증권 등 5개 증권사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총 4조8438억원이다. 미래에셋증권이 1조9019억원으로 가장 많고 한국금융투자(1조415억원), 삼성증권(6435억원), 키움증권(6375억원), NH투자증권(6194억원)이 뒤를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호실적의 배경은 거래대금 증가다. SK증권에 따르면 국내의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2분기 일평균 거래대금은 118조1000억원으로 1분기보다 35.1%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투자협회 집계 기준 신용거래용자 신고도 2분기 일평균 35조9418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조아해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일평균 거래대금의 절대적 수준이 높아지면서 브



여의도 증권가 전경.

/메트로신문DB

로커리지 관련 이익의 높은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투자자산 평가이익도 실적에 반영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증권업종 주가는 실적 기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증권지수는 이날 2203.44를 기록했다. 지난 5월 기록한 52주 최고치인 3362.84보다 약 34.5% 낮은 수준이다. 증권업종 전반의 이익 전망은 상향되고 있지만 시장은 이미 하반기 실적과 이익의 지속 가능성을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가장 엇갈린 평가를 받은 곳은 미래에

셋증권이다. 장영임 SK증권 연구원은 미래에셋증권의 2분기 지배주주순이익을 1조4860억원으로 예상하며 증권본업과 해외법인의 이익 체력이 개선됐다며 투자의견을 ‘매수’로 상향했다. 다만 목표주가는 기존 6만9000원에서 5만1000원으로 낮췄다. 스페이스X 투자에서 발생한 대규모 평가이익이 2분기 실적을 끌어올렸지만 하반기에는 반대로 평가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익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다.

반면 김민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미래에셋증권의 주가 하락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하반기 자사주 소각과 총주주환원율 35% 정책이 본격화되면 추가적인 주가 상승 동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증권가에서는 거래대금 증가가 이어지는 동안 브로커리지와 WM을 중심으로 한 실적 개선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투자자산 평가이익의 비중과 주주환원 정책, 시장점유율 확대 여부에 따라 종목별 주가 흐름은 차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허정윤 기자 zelkova@

금융위, 8800억 초장기기술투자펀드 조성

최대 15년 존속기간 적용

금융위원회가 차세대 반도체와 첨단신약 등 장기 투자에 필요한 기술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8800억원 규모의 ‘초장기 기술투자펀드’를 조성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한국산업은행 IR센터에서 개최된 ‘초장기기술투자펀드 공청회’에 참석해 이같은 펀드 운영방안을 공개했다. 이 펀드는 국민성장펀드 내 신규 프로그램으로, 장기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한 첨단기술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 기존 정책펀드보다 긴 최대 15년의 존속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 중 운용사 모집 공고를 내고 연말부터 투자를 시작할 계획이다.

펀드 규모는 총 8800억원으로 조성된다. 첨단전략산업기금 6000억원과 재정 800억원 등 공공재원이 전체의 약 77%를 부담하고, 민간자금은 2000억원 이상을 모집한다. 민간 출자 부담을 줄이는 대신

실제 투자기간은 7년, 펀드 존속기간은 15년으로 길게 부과해 기술기업에 대한 장기 투자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주요 투자 대상은 차세대 반도체와 첨단 신약 등 장기간의 기술개발이 필요한 우수 기술기업이다. 금융위는 향후 우주항공, 양자컴퓨팅 등으로 투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단순히 재무성과가 아니라 기술력을 평가할 수 있는 운용사를 우대하고, 미래 원천기술과 핵심기술에 특화된 전문운용사(KSTP)를 적극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글로벌 투자전쟁이 격화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미래를 바꿀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주력산업의 핵심기술을 내재화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제”라며 “국민성장펀드도 그간의 성과를 넘어서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기술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하은 기자

미래에셋운용, 美 기술주 액티브 ETF 출시

시총 상위 기술주 성과 추종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국 기술주 중심의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인 ‘TIGER 미국테크NYSE100액티브’를 오는 21일 상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ETF는 비교지수인 NYSE100 지수를 바탕으로 미국 테크 기업에 집중 투자하면서 액티브 운용을 통해 초과수익을 추구한다.

NYSE100 지수는 정보기술(IT) 비중이 73%에 달하는 대표적인 미국 테크 지수로, 시가총액 상위 기술 및 기술 기반 성장

기업 100개 종목의 성과를 추종한다. 최근 5년 누적수익률은 127%를 기록하며 나스닥100(108%)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77%)를 모두 상회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기술 발전에 대한 높은 노출도가 장기 성과 우위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TIGER 미국테크NYSE100액티브’는 AI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뿐 아니라 로봇, 우주·방산, 사이버보안, 자율주행 등 차세대 성장 산업에도 투자한다. 엔트로픽과 오픈AI 등 유니콘 기업이 상장할 경우 지수 편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속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허정윤 기자

“휴대폰 렌탈 악용 불법사금융 주의하세요”

금감원, eSIM 투자사기 등 확산

금융감독원이 휴대폰 렌탈계약을 악용한 불법사금융과 이심(eSIM·내장형 가입자식별모듈) 투자사기 등 신종 민생금융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사업자등록 후 휴대폰 렌탈계약을 대출 조건으로 요구하거나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권유는 사

기일 가능성이 높으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휴대폰 렌탈계약을 담보로 한 불법 고금리 대출과 eSIM 투자사기 등 신종 금융사기가 확산하자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올해 금감원에는 동일 업자와 관련한 불법사금융 민원·제보 8건, 유사수신 제보 15건이 접수돼 수사·의뢰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대표적인 사례는 휴대폰 렌탈계약을 담보로 활용한 불법사금융이다. 불법업자는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배달대행업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뒤 휴대폰 렌탈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담보로 연 15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실행했다. 실제로는 휴대폰 단말기 인도나 유심 개통이 없음에도 설치확인서에 서명하도록 해 정상 계약처럼 꾸민 뒤, 채무를 갚지 못하면 렌탈채권을 다른 업체에 넘겨 추심과 형사고소 협박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하은 기자